우울한 광주 20대…취업자 4300명 줄어 '전국 최대폭'

올 1분기 경제활동참가율 53.7%…전년비 2.5%P 줄어
4년제 대졸 취업자 1만8600명 줄어…19개월 연속 감소
구직 포기 심화에 인수위 "은둔 청년 도약 준비금 도입"

광주 20대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분기 연속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광주 20대 취업자는 전년보다 4300명 줄었는데, 이 같은 감소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컸다.

1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기준 광주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53.7%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2.5%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남은 58.8%로, 전년보다 2.2%포인트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거나 일시 휴직자, 무급 가족종사자 등 '취업자'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전국 평균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보다 2.3%포인트 증가한 63.3%로 집계됐다.

광주는 세종(46.2%)과 전북(53.2%)에 이어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올 1분기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년보다 감소한 지역은 세종(-10.5%포인트)과 광주, 경남(-2.5%포인트), 부산(-0.8%포인트) 등 4곳이다.

광주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3분기 울산보다 낮아지더니 7대 특·광역시 중 꼴찌에 주저앉았고, 이 기록을 3분기 연속 유지 중이다.

1분기 광주지역 20대 취업자는 10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4.1%(-4300명) 감소했다. 전국 20대 취업자는 6.2%(22만1700명↑) 증가했으며, 광주 감소폭은 전국에서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전남 20대 취업자는 11.0%(8800명) 늘어난 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구직 포기 등의 이유로 광주지역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 감소도 지속되고 있다.

광주 4년제 대학 졸업 취업자 감소는 지난 2020년 9월(-9100명) 시작된 뒤 19개월 연속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 4년제 대학 졸업 취업자가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광주(-2만600명)와 인천(-3100명) 뿐이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년제 졸업 취업자 감소폭이 11개월 연속 가장 컸다.

올해 1분기에만 광주에서 4년제 대졸 취업자가 전년보다 6.7%(-1만8600명) 줄었는데,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 3.8%(35만8900명↑)를 나타낸 것과 대조됐다.

노동 시장 변화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심화되고 있는 청년층의 고립은 사회 현안으로 떠올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태스크포스(TF)는 최근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조사와 대책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며 "바우처 형식의 청년 도약 준비금을 도입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찾아갈 수 있는 종합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립청년은 타인과의 관계망이 없거나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감(고독감·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청년을 말한다. 은둔청년은 학교나 사회에 나가지 않고 자택에 머물며 가족 이외의 친한 인간관계가 없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인 청년을 이른다.

20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은둔 청년 규모는 약 34만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3.1%에 달한다.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시의 '2020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현재 또는 과거 은둔형 외톨이인 237명 가운데 20대가 116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48.9%)를 차지했다. 광주시의회는 5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를 지난 2019년 10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하고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고 혁신가상 수상

美 뉴스위크 선정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12일(현지시간) 정의선〈사진〉 현대차그룹 회장을 자동차업계 최고 혁신가로 선정했다.

13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뉴스위크는 이날 저녁 뉴욕시 원월드 세계무역센터에서 '세계 자동차 산업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들' 시상식을 열고 정 회장에게 '올해의 선지자'(Visionary of the Year) 상을 수여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 시상식은 뉴스위크가 지난해 발표한 '미국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 50인'을 한층 더 발전시킨 행사로, 정 회장은 첫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최초 수상자로 정 회장을 선정한 이유로 뉴스위크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현대차그룹은 그의 리더십과 담대한 미래 비전 아래 모빌리티의 가능성을 재정립하고 전기차, 로보틱스,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를 통해 인류에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위크는 정 회장이 기업을 더욱 수직통합하고, 다수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며, 수소연료전지차를 개발한 것은 물론 로봇회사를 인수함으로써 현대차그룹을 "파괴적 변화의 선봉에 올려놨다"고 평가했다.

이날 뉴스위크는 '파괴적 혁신가들'이라는 특집호를 발간하고 표지 인물로 정 회장을 실었다.

모두 6개 부문을 시상한 이번 행사에서 현대차그룹 아키텍처개발센터는 '올해의 R&D팀' 부문에서, 현대차그룹 전동화개발담당은 '올해의 파워트레인 진화' 부문에서 각각 상을 받았다. 전체 수상자의 절반을 현대차그룹에서 배출한 셈이다.

이들은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와 전기차 시스템 개발의 주역이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해 글로벌 유력 자동차 전문지 영국 '오토카'(Autocar)로부터 최고 영예의 상인 '이시고니스 트로피'(Issigonis Trophy)를 수상하기도 했다.

정의선 회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현대차그룹의 노력들은 결국 인류로 향할 것이고, 우리가 이뤄낼 이동의 진화는 인류에게 더 가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나 인간 중심적이고 친환경적인 파괴적 혁신에 앞장서겠다"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지역 중기 상생협력 지원 간담회 광주은행 송종욱(왼쪽) 은행장은 지난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김용훈 본부장과 '지역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취약계층의 재기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은행 제공〉

지역 중소·중견 기업 수출 지원사업 본격 시행

광주FTA활용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 등 11개 분야 21개 사업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광주FTA활용지원센터는 13일 지역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출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올해 2월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지역 수출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 한해 지역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FTA 컨설팅 ▲수출입 관련 재직자 교육 ▲전문상담실 운영 ▲해외시장 진출지원 ▲원산지 증명서 발급 ▲특성화 고교생 대상 FTA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11개 분야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상의는 이를 위해 올해 FTA지원센터 내 2명의 상주관세사를 배치하고 외부에는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4명의 전문관세사를 통해 지역 수출기업들의 다양한 수출 관련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OK FTA 컨설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는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취득 등을 지원하고, 그 중 기계, 농수산, 식품 등 지역 중점업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점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수출기업 및 FTA 미활용기업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내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FTA 조사·연구 등을 실시해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방안 마련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FTA를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시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를 기업들에게 최대 50만원 내에서 무료로 지원,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카달로그 제작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올해 RCEP가 새롭게 발효되면서 지역 수출기업들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광주지역 FTA활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지원 사업을 세심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FTA 관련 어려움 해소나 수출입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광주FTA활용지원센터 전화(062-350-5861)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인천공항 고속버스 내달 6일 운행 재개

코로나19 사태로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서 광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고속버스도 운행을 재개한다.

금호고속과 광신고속은 다음달 6일부터 광주~인천공항 고속버스 운행을 재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조치에 따라 국제선 항공 운항편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운행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이에 광주·전남지역에서 인천공항을 바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편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지역민들도 이번 광주~인천공항 고속버스 운행 재개로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버스는 '코버스' 홈페이지 또는 고속버스 '티머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반대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광주로 도착하는 버스는 시외버스 티머니 홈페이지이나 앱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광주~인천공항 버스는 하루 4회 운행되며, 광주출발행 버스는 새벽 1시와 3시, 오전 11시, 오후 1시다. 인천공항 출발(제2터미널 기준) 버스는 오전 8시30분과 11시15분, 오후 6시5분과 8시30분에 운행한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광주~인천공항 버스 운행 재개로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점차 이용객이 증가하면 해당 노선 버스 운행편수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문의는 금호고속 전화(062-360-8114) 또는 광신고속(062-574-3103)으로 하면 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양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사업' 참여 업체 모집

전남신보, 온라인 마케팅·노무 기초 과정 등 실시

전남신용보증재단은 광양시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남신보는 광양시와 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5년째 진행하고 있다.

광양지역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멘토링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56%가 이전보다 매출이 늘었다.

교육은 온라인 마케팅 교육과 절세 방안, 노무 기초 과정 등으로 구성됐다.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된다. 강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상담과 멘토링 때는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경영진단과 해결책 제시를 해준다. 교육 기간 동안에는 사업장 전담 매니저도 배치된다.

지원사업 신청은 이달 28일까지 전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jnsinbo.or.kr) 또는 광양시 지역경제과를 통해 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16.49 (+49.73)
↑	코스닥	927.31 (+13.49)
↓	금리 (국고채 3년)	3.001 (-0.104)
↓	환율 (USD)	1228.00 (-8.20)

소상공인·예비 창업자 경영상담

광주신보, 11개 분야 무료 지원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이달 11일부터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상담'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영상담 대상은 광주신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와 예비 창업자이다.

이들은 상권 및 입지분석, 유통 및 물류, 고객서비스, 마케팅, 프랜차이즈, 회계, 세무, 업종전환, 사업타당성 분석, 점포운영, 노무 등 11개 분야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비용은 광주신보가 부담한다.

올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총 100개이다. 기본적으로 1회 상담을 받고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받은 업체는 별도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상담 신청은 광주신보 각 지점(광산·동구·서구·남구·북구·송정)에서 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은행 전남본부, 행복채움금융교실 연중 운영

학생·금융소외계층 대상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농협은행 행복채움금융교실'을 연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에는 나주 반남중학교에서 첫 금융교실을 진행했다.

반남중 학생 50여 명은 금융 기초 상식과 저축·투자의 개념, 금융 재테크 등을 배웠다.

이날 수업 주제는 '올바른 저축 및 소비생활'로, 올바른 소비와 저축습관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뒀다.

NH농협은행 행복채움금융교실은 전남지역 초·중·고·대학생, 금융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금융감독원 '1사1교 금융교육신청' 또는 진로체험프로그램 '꿈길'에서 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